

기존 동판기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복제전통의 수명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 노태형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2월 22일 수요일 (주간)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여러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법구경)

법회 안내

달마사 (02)521-5001
초하부법회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안사재일 매월 8일(음)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서예법회 매주 목, 금 오후 2시

호암사 (02)803-4779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인동기도 매월 15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시지암 (02)825-1046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학생법회 매주 일 낮 12시
창년법회 매주 일 오후 3시

정토포교원 (02)737-0853
대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 7시30분
아미타대법회 매주 수 오전 11시
창년법회 매주 수 오후 7시30분
가례회 매주 금 오후 7시30분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정토와인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라홀라(종교동부) 일 오전 8시

천인 연대선원 (0417)551-2010
일반법회 초하부, 보름(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창년법회 매주 월 오후 8시

양양 문수사 (0396)671-8889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 2시
창년법회 매월 둘째, 넷째
일 오후 7시
일반신도법회 18일 오전 11시
말암 대웅전사(0527)355-484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목 오후 7시

지방자치 '강건너 불' 아니다

교계, 시민 통제기능 주도...신도회 앞장서야
김병준 교수, 교구본사 주지 연수회에서 강조

불교계는 눈앞에 닥친 지방자치제를 강건너 불보듯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현실사상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불교계도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월 20~22일간 직지사 연수원에서 개최된 제 1회 조계종 본사주지 연수회에서 김병준교수(국민대)는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 주제 강연에서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에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 적절한 자치기능 △ 지역내 특정 이해관계세력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경영능력 △ 시민적 통제 확보 등 네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에서 시민적 통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한 김교수는 "선거가 선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인해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법인 시민 참여 내지는 통제로 현재의 대의제적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계통인 부천 YMCA가 주도해 성공시켜 지방자치 역사의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조례' 제정을 예로 들

며 김교수는 대조적으로 불교계가 그동안 시민참여 내지는 시민적 통제와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불교계도 세계화와 지방화라

는 조류속에 민족이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고 있는 이때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교수의 지론. 그는 지역사회에서 사찰이 지니는 지도력과 영향력 등을 생각할 때 원하든, 원하지 않은 사람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일정한 역할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병준교수는 불교의 이러한 현실참여가 뚜렷한 원칙과 함께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것으로 선거과정에서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현실참여는 청년회나 신도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잘 잘못을 지적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하고 사찰은 이러한 활동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본사주지 연수회에는 이밖에도 리영희교수(한양대)가 '한반도의 비핵화·군축·그리고 통일' 김중서박사(서울대)가 '지도자로서의 자기변화' 박윤환 교수(경희대)가 '불교와 환경'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정락섭(조계종 포교원장)이 '한국사회의 종교현황과 불교의 과제' 삼성 멀티미디어 추진실에서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한 불교계의 대비와 활용' 등에 대한 설명회와 조계종의 현황에 관한 비디오 상영이 있었다.

조계종은 본사주지연수회에 이어 3월부터 금년말까지 각 교구 말사 주지스님들의 연수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송광사 성보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보름 104호 국사연명11명

국사연명은 불자에게 매우 소중한 성보입니다. 성보는 선조들이 물려준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을 우리민족정신의 뿌리입니다. 뿌리없는 나무는 살수없듯이 문화유산은 민족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송광사 성보**를 돌려주세요. 성보 도난신고 센터를 남길 문명입니다. (02)737-0698-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선본사 조사특위' 구성

조계종 임시총회, 선관·법규위도

관련 문제로 잠음이 일고 있는 선본사(일명 갖바위)에 대해 조계종 중앙총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16일 열린 제115회 임시 중앙총회(의장 설정스님)는 선본사의 수일살대 전방을 살사하는 조사특위 구성과 함께 총림 청화 영담 광복 성문 효립 현진 육문 진성 석호스님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심의 초점이 됐던 선본사의 은혜사 말사로의 환원 제안은 무산돼 직영 사찰로서 계속 존속하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법규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에 탄성 스님등 9명, 법규위원회에 법장 스님등 9명을 각각 선출했다. 현호스님의 사직으로 자리가빈 조심계위원회에 월서스님이 보선됐고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는 지선스님등 6명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불교특위구성건의 건 불교광상 진흥원 불교 TV의 건은 차기총회로 이월됐다.

'지자체와 불교' 포럼

3월18일 대불청 주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오는 3월18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대불청의 성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갖는 이날 포럼에서는 6월 지방화시대 개막을 앞두고 '민자단의 지자체 정책과 방향' '민주당의 지자체 정책의 방향' '지자체와 불교의 범위와 전망' '대불청의 95년도 정책과 방향' 등을 토론한다.

목어
조계종은 지나치게 개방적이다. 일반 가정살림에서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있고, 집안에서 소리없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거늘 조계종은 너무 가림이 없어 보인다. '가림'이라고 해서 속입수를 쓰거나 누굴 속이자는 것이 아니다. 노출돼 부끄러울 문제가 생기거나 의견을 조율할 안건이 있으면 성직자들의 집

합체하게 조용히 해결하는 뜻이다. 최근의 선본사(갖바위 부처님) 문제만 해도 그렇다. 관리권을 놓고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 총회의 안건으로 채택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이 이쯤되면 총회에서 잘 마무리 해도 조계종은 또한번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 셈이다. 아무리 수행인이 모인 승가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

조계종의 새 봄

다 보면 '소리'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해결의 답, 즉 부처님의 8만4천 법문을 우리는 늘 가까이 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바로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려는 불제자들이다. 문제가 생기면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열린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대야만 '갖바위 부처님' 가피의 품이 더 넓어지고, '상구보리 하회총생'이란 말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불이다. 계절의 봄, 세기의 봄을 준비하는 조계종은 새 물결을 트느라 바쁘다. 여기서 종도들은 그간 바람잡았 없이 이어져온 크고작은 '불멸화음'의 원인을 숙고하자. 그리고 참회할 시간을 갖자. 그러면 종성한 수행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평가 전문가 실바 교수

석굴암(국보 제24호)과 해인사 대장경판 및 판고(국보 제32호, 52호), 종묘(사적 제125호)가 유네스코가 지칭하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파견 방한한 세계적 건축가 니말 데 실바(스리랑카 모라투와대학 교수 겸 ICOMOS 국제문화재유적지연구위원회 스리랑카 사무총장)교수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현지 조사를 마치고 "한국이 신청한 3건의 문화재는 모두 세계의 문화유산이 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드러났다. 실바교수는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WHC(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ICOMOS의 전문가로 한국에 파견돼 7일 석굴암, 8일 해인사 판본대장경판 및 판고, 10일 종묘를 현지 조사했다.

현지 조사를 마친 실바 교수는 지난 11일 문화재관리국 주요인사들이 참가한 자리에서 강연을 갖고 출국, WHC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신청한 3건의 문화재는 WHC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공식일정을 마친 실바교수를 지난 11일 오후 필동 '한국의 집'에서 만나 현지조사 소감을 들었다. —한국의 문화재를 둘러 본 소감은. ▲오기 전에 가졌던 막연한 생각과 전혀 다른 문화재를 접

"석굴암등 미적가치 세계 최고"

하고 경이로웠다. 제출된 보고서만 읽고 생각했던 이미지에 비해 너무나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 자체의 미적 가치에 압도당했다. —3건의 문화재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모두가 인상적이어서 특별히 한 건만 이야기 할 수가 없다. 판본대장경판의 완벽한 보존과 판고의 과학적인 설계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석굴암의 숭고한 신앙성과 예술적 아름다움도 나를 거듭거듭 놀라게 했다. 동형의 축조기법은 제작 당시의 세계 건축 기술을 감안할때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술이 8세기의 한국에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보존불상 옆의 화강암에 새겨진 조각들은 마치 종이에 그려넣은 그림처럼 훌륭하다. 종묘의 경우도 건축기법과 음악 그리고 제사의식이 함께 온전히 보존되고 있어 이 역시 세계 유일의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조사를 하며 느낀 것은 한국이 신청한 3건중 대장경 석굴암 관련문화재는 해인사, 불국사를 묶어서 통째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신청해도 무방했을 것이란 점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토록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교육을 학교교과 과정으로 넣어야 할 것 같다. 또 문화재 보존은 새롭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잘 유지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한 최대한의 재정지원과 인력 투입도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임연태 기자)

명품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 중전기 및 송변전 설비: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 (유입, SF₆GAS, 진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용접기 및 변전설비, 철강, 철구조물
- 산업용 기기 및 설비: 컴프 압축기, 송풍기, 크레인, 수문, 삭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 화학장치, 주조설비
- 회전기기: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에보터, 브레이크 모터, CLS 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 전력전자 및 FA: 자동상고 UPS, 프로그램이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교류전자 접촉기, 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건설: 효성빌라, 주택건설, 각종 건축 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